

총재정부 시기 앵크루아야블(Incroyables) 복식의 낭만주의 특성

신파람 · 이호진^{1)†}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과 의류학전공

¹⁾전북대학교 의류학과

Romanticism Characteristics of the Incroyables Fashion during the Directoire

Param Shin and Hyojin Lee^{1)†}

Dept. of Human Ec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¹⁾*Dept. of Fashion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Abstract : Romanticists realized the ideals of a more fantastic and better society for the present day in which they lived; in addition, dress was an important medium of expression of this period. The Incroyables were a group that expressed eccentric forms and abuses of luxury through their clothing, centering around the second generation of financial elite groups during the French Directoire. Incroyables created their own fashion that expresses their new image in dress, expressing the intense personal innerity of life, which was influenced by the romanticism of pursuing an internal expression of the subjective and emotional individual. This study used a literature review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manticism expressed in the Incroyables fashion.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an expression of an emotional desire for and ancient regime. Incroyables fashion were based on bourgeois nostalgia for the days of the ancient regime that resulted in an emphasis on individual and original human views. Second, it was also a hybrid of Romantic classicism. It was a form emphasizing body form where body beauty expressed a classical form through a dress under the influence of neo-classicism that desires to return to nature.

Key words: incroyables (앵크루아야블), directoire (총재정부), romanticism (낭만주의)

1. 서 론

복식은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발전된 예술 형태이며 당시의 예술양식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반영하고 발전해왔다. 낭만주의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유럽의 혁명과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한 양식으로, 혁명을 주축으로 하는 정치적 운동과 사회보완적으로 나타났다(Time life books, 2000/2005). 초기 낭만주의는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철학 및 문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실생활에 있어서는 복식을 통해 나타났다(Lee & Jeon, 2004). 낭만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질서 및 조화와 이성을 주장하던 합리주의자의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자 하였으며 정열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었다(Time life books, 2000/2005). 즉, 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해 보다 환상적이고 좋은 사회의 이

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복식은 이러한 시대 사조의 표현 매체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나타난 앵크루아야블(Incroyables)은 총재정부(Directoire) 시기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특정 그룹으로서 사회 엘리트로 부상했던 중간계급이며, 공포정치 이후의 해방감을 즐기면서 새로운 생활양식에 앞장선 그룹이었다(Time life books, 2000/2005). 앵크루아야블의 복식은 프랑스 혁명 이후 정치 경제적인 격변하에서 탄생한 민중의 복식인 상퀼로트(Sans-culotte)와 대비되어 나타났는데, 앵크루아야블은 앙시앵 레짐(Ancien-régime) 시대의 복식을 그들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만들었다. 즉, 앵크루아야블은 자신들의 새로운 이미지를 복식에 표현한 그들만의 패션을 창조하여 삶에 대한 강렬한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였는데(Zieseniss & Le Bourhis, 1989), 그 기저에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개인의 내면 표현을 추구했던 낭만주의의 영향이 있었다.

총재정부시기 앵크루아야블의 등장은 초기 낭만주의 시기의 독특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복식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복식에 낭만주의의 영향이 깊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연구의 중요성을 두었으며 연구목적은 앵크루아야블 복식에 표현된 낭만주의 특성을 분석함에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관련 서적 및 선행 논문을 통하여

†Corresponding author; Hyojin Lee

Tel. +82-63-270-3848, Fax. +82-63-270-3799

E-mail: curiously@naver.com

© 2020 (by) the authors. This article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론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국외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서적을 통한 사진자료의 수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초기 낭만주의가 태동하였던 프랑스 혁명 전후로 하였으며, 특히 앙크루아야블이 나타난 총재정부 시기에 초점을 두었다.

2. 총재정부 시기의 사회적 배경과 상류층 남성 복식

이론적 배경에서는 시대적 조류에 의해 나타난 앙크루아야블의 복식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 및 경제, 예술양식, 상류층 남성 복식을 고찰하였다.

2.1. 정치 및 경제

총재정부(집정관 정부, 집정정부)는 군주제는 물론 과격한 혁명을 거부하는 온건 중도세력을 중심(Lee, 2011)으로 4년 동안(1795~1799) 지속된 체제로 프랑스 혁명 말기의 테러리즘(Terrorism)에 의한 독재정치로서 민중의 거대한 힘을 배경으로 한 자코뱅(Jacobins) 당의 공포정치(La Terreur, 1793~1795) 이후 출범하였다. Kim(2015)은 총재정부를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의 공포정치와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 시기 사이에 정치사상의 풍부한 변주가 나타난 시기로 보며, 신자코뱅이자 민주공화파의 지도적 인사인 앙토넬(Pierre-Antoine d'Antonnelle de Saint-Léger)의 대의민주주의론을 통해 알 수 있듯 중용의 길을 모색하며 공포정치로도 구제체로도 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로 평가한다. 공포정치는 끝났지만 총재정부는 좌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종 탄압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 때에 따라 왕당파와 결탁하기도 하였다(Kim, 2015). 총재정부는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고,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성향의 정치 협회들은 폐쇄하였다(Yang, 2015).

총재정부는 국민 공회 때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네 차례에 걸친 집정관과의 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Lee, 2011).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경제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 시기 총재정부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는 우파가 볼 때는 국내외의 위기관리에 무능한 정부였고 좌파가 볼 때는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정부였기에 매우 불안정했다. 정치적으로 총재들은 잦은 구설수에 휘말렸으며, 사람들은 혁명에 지치고 평화를 갈망했다(Kim, 2015). 쿠데타가 연이어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과 총재정부의 무능 및 부패가 계속되면서 정부에 대한 환멸, 질서와 안정에 대한 선호가 사회 전반에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Yang, 2015). 총재정부가 출범했을 때 경제의 인플레이션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겨울 내내 경찰의 보고서에는 민중의 비참함과 불평의 기록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Soboul, 1962/2018). 한편 혁명은 전통적인 귀족들의 지배를 깨트렸으나 대혁명 시기 아시나 화폐의 참담한 실패와 같은 경제적 난

관이 국가를 큰 은행에 종속시켰으며(Blancpain & Couchoud, 1920/2010) 이는 특히 금융의 세계와 결부되어 부르주아지 즉, 새로운 엘리트들이 과거 귀족의 사회적 위치를 점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Lodge, 2004).

프랑스 사회는 빈부격차가 뚜렷했으며 극심하게 변동하는 재산소유 관계로 혼란스러웠으며(Kim, 2015), 민중들의 비극은 투기꾼들의 사치와 몰염치한 행위로 더욱 두드러졌다. 총재정부 말기에는 망명자와 추방당한 성직자들이 대부분 복귀하였고,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뒤이어 디플레이션이 나타나 극심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총재정부는 자금 융통을 위하여 금융업자, 은행가, 조달 상인, 군수품 납품업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Soboul, 1962/2018) 이로 인하여 총재정부는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에 처했다(Blancpain & Couchoud, 1920/2010).

총재정부 말기 국유 재산을 지불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유림의 벌목권이나 도의 조세 수익권 등이 채권자들에게 양도되었다. 이와 같은 관행과 정부의 무능에 편승한 일부 정치가들의 수뢰로 인해 부패 행위가 급증했으며, 어떤 사람은 소금에 투기하고 어떤 사람은 국유 재산에 투기하여 재산을 모으는 등의 벼락부자가 나타났다(Dawson, 2015; Soboul, 1962/2018).

한편 프랑스는 영국 다음으로 기계화에 의한 산업혁명을 수행한 나라로 1789년 중농주의자의 자유 사상을 받아들였으며(Blancpain & Couchoud, 1920/2010), 도시에는 fashionable shops들이 갑작스럽게 생겨나고 도시의 거리는 포장되는 등 현대(Modern) 사회로 변화하고 있었다(Mackrell, 2005). 대규모 상업의 발달과 대규모 공업의 출현(Soboul, 1962/2018) 즉, 기계화로 한 산업, 상업 자본주의의 대두로 부르주아 사업가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총재정부 시기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는 금융과 경제의 지도층으로서 신(新)부르주아지들의 등장이었으며 이들은 총재정부의 정치적 방향을 우호적으로 활용하여 새롭게 엘리트 계층으로 부상한 시민이었다는 점이다.

2.2. 예술양식

예술은 인간의 시대정신과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며 이는 패션의 전개에 많은 영감과 모티브를 제공한다(Cho, 2016). Hauser(1983/2016)는 낭만주의가 서양 정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 했다. 계몽주의의 최고의 성과는 1789년의 혁명으로 나타난 이성에 의한 비합리적인 정치체제의 타파였는데, 사람들은 혁명을 통하여 드러난 인간의 취약한 면에 절망하였고, 주변이 어지럽게 변하는데 당혹하였으며, 모든 원리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일체에 대한 불신감을 가졌다. 이러한 정신의 폐허 위에 자신의 심성에 맞는 문화를 이룩하려고 한 것이 낭만주의 정신의 본질이었다(Hauser, 1983/2016).

낭만(Romantic, 浪漫)이란 의미는 대개 '고전적(Classic)'의 대조가 되는 뜻으로 사용되며 감정의 절제보다는 자유로운 표

현을 추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을 지향하며 주관성과 독창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뜻한다(Heath & Boreham, 1996/2002).

낭만주의는 통시적으로 독일의 구동독 예나(Jena), 베를린을 중심으로 시와 문학 그리고 철학에 관심이 높았던 초기 낭만주의(1797-1804),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중기 낭만주의(1804-1815) 그리고 비엔나, 베를린, 뮌헨을 중심으로 하면서 독일 전 지역과 프랑스, 영국까지 확대된 음악 중심의 후기 낭만주의(1815-1850)로 구분될 수 있다(Roh, 2010).

프랑스, 영국 낭만주의는 모두 구 동독에서의 독일 초기 낭만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낭만주의는 원래 미술의 양식개념인 고딕, 바로크 혹은 고전주의와는 달리 처음부터 인생에서의 기본적 태도와 관련된 것이었다(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1998). 낭만주의자들은 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심화하면서 혁명이 이룩한 성과를 의식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 시기에 의해서도 그 특징이 구분지어진다. 프랑스의 경우 혁명시대나 제정시대와는 다르게 총재정부시대는 특히 그 특징이 부각되는데, 총재정부 시기에는 두 시기와 다르게 두드러질 정도로 경박하고 쾌락주의적이며 유미적·향락적 성격을 띤다(Hausser, 1983/2016).

프랑스 18세기말은 부르주아에 의해 주도된 혁명 정신이 전 유럽에 걸쳐 파급되어 봉건제에 반대하는 인민해방투쟁이 폭발하던 역사적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회 상태는 낭만주의에 반영되었다. 반영의 방식 중 하나는 자본주의의 승리에 대한 반동이었는데, 새롭게 나타난 사회가 초래한 여러 모순을 환상적인 이상 속에서 회피하려고 하면서 봉건제로 되돌아갈 것을 제창하는 것이었다(Lim et al., 2012). 이러한 낭만주의적 특징으로 인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추억거리와 자신을 유추, 비교할 대상을 찾아 지나간 시간, 잃어버린 문화를 그대로 반복, 재생하고자 하는 욕망이 두드러졌다(Hausser, 1983/2016). 즉, 프랑스의 전기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와 귀족주의 사회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절대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다(Song, 2012).

역사를 인식하는 관점에서 낭만주의는 과거에 대한 향수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신고전주의와 일정부분 동질성을 가진다. 고전 예술을 모방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예술(Art Unabridged Dictionary, 1998)은 Mackrell(2005)에 의하면 로맨틱(Romantic) 감정 융합의 결과이다. 즉, 신고전주의는 로맨틱 감정을 동반한 상태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해석 할 수 있다. 신고전주의를 낭만주의가 포괄하는 예술양식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로맨틱 클래식시즘(Romantic classicism)이며 이것은 고전의 것을 가치 있게 평가하던 신고전주의의 역사적 인식과 그것을 현대(Modern)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던 양상이다.

즉, 프랑스의 초기 낭만주의는 인생의 기본적 태도와 관련하여 신고전주의와 같이 고대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등 새

로운 생활양식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롭게 나타난 사회는 여러 모순을 초래하였기에 이를 회피하고자 로맨틱 감정이 더욱 짙어졌으며 이에 낭만주의는 환상적인 이상 실현을 추구하면서 주관성, 독창성 등 개인 감성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향하였다.

2.3. 상류층 남성 복식

프랑스 혁명 이전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시기의 상류층 남성 복식은 세습 및 혈통으로 이어지는 특권 집단의 문화를 의미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상류층 남성은 새롭게 형성된 신흥 부르주아를 주축으로 문화의 구심점이 변화하였다. 정치성을 함의한 신흥 부르주아 남성 복식의 경우 크게 앙시앵 레짐 시기 복식 코드를 계승하는 집단과 상퀼로트와 같이 배척하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앙크루아아블의 복식은 퀴로트 복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혁명 시기의 퀴로트 작장 그룹에 한해 상류층 남성 복식을 고찰하였다.

공포정치 시기에 앙시앵 레짐 시기 복식 즉, 퀴로트 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에는 생명의 위험부담이 따랐다. 그러나 온건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한 총재정부 시기에 공포의 압박에서 해방되자 상류층 사람들은 공포정치에 대한 반동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며, 앙시앵 레짐 시절과 같이 잘 차려 입는 옷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였다(Soboul, 1962/2018).

총재정부의 복식에 대한 정책 또한 파리를 세계 패션의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방향이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활기를 되찾은 패션 산업은 혁명기에 살아남은 장인의 재능에 기대어 발전하였다. 혁명 전의 장인이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풍부한 디자인의 양과 함께 파리를 세계 패션의 중심으로 회복시킨 것이다. 총재정부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섬유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였으며, 기술 발전을 장려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사회 및 국가 경제를 방어하는 정책이 있었고 공무원들은 프랑스 제조의 재료만을 구입하도록 정책을 펼쳤다(Ziesennis & Bourhis, 1989).

이처럼 정치적으로 패션 산업의 부흥을 장려하면서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는 고급스러움과 사치스러움에 대한 욕구가 팽배하였다. 복식의 자유로운 착용이 가능했던 사회적 분위기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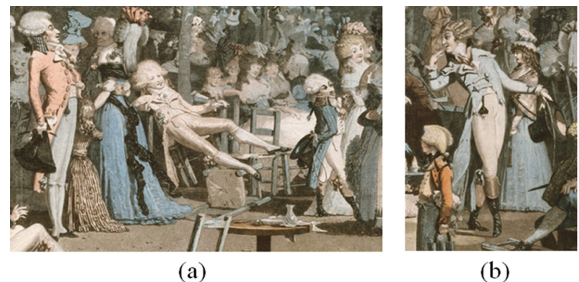


Fig. 1. The public promenade, 1792.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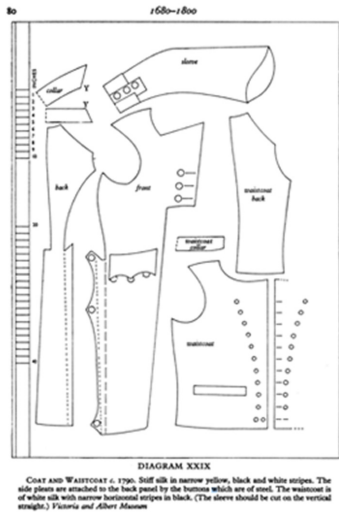


Fig. 2. Coat and waistcoat c.1790.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1964). p. 80.

해 여가시간에 도시의 각종 유흥거리를 즐길 수 있었던 상류층 남성들이 퀴르트 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당시 프랑스 거리의 풍경을 묘사한 드뷔쿠르(Philibert-Louis Debucourt)의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1790년대의 초기 남성복의 형태인 코트와 웨이스트 코트의 넓은 라펠(Fig. 2), 버클 대신 무릎 아래에서 끈으로 묶는 퀴르트, 펌프스 형태의 끝이 뾰족하고 굽이 작은 구두를 착용 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혈통에 따른 계급이 없어졌지만, 계층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상류층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즐거움과 오락에 대한 열렬한 갈증이 있었으며 이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춤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났다. 춤은 비실용적이며 따로 습득을 위한 학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의 새로운 공화국 속에서 노동이 아닌 자유 시간 즉, 여가를 즐기는 것을 춤으로 과시함으로써 귀족적인 취향을 여전히 향유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었다(Laver et al., 1969/2002; Van Hende, 1874; Wallace, 1986). 상류층 계급이 춤을 추는 모습이나 산책을 하는 등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 Fig. 1과 같이 성장을 한 차림을 볼 수 있다. 특정 춤을 추는 연회에는 처형된 사람들의 혈족만을 참가자로 하며 퀴르트 차림이 드레스 코드인 것(Wallace, 1986)도 있었다. 즉, 퀴르트 차림을 하는 상류층은 신흥 부르주아 또는 몰락한 귀족의 일부였다.

전체적인 복식은 신체에 밀착되는 형태였다. 당시 혁명정신은 앙시앵 레짐을 비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진정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며 이 사상에 대한 토대를 고대에서 찾았다. 혁명을 주도한 세력 중 일부는 고대 로마 공화정의 영웅들과 같이 자신들이 영웅이 되어 절대주의에 대한 승리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자 했으며, 그들은 육체에 대한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을 고대 로마의 육체형태에서 찾고 고대복을 기조로 하여 나체에서 고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을 새롭게 발견

하고 추구했다. 이에 청년 신사들 사이에서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늠름함을 표현하는 근육과 탄탄한 종아리 및 굽은 허벅 다리를 표현하는 것, 넓은 가슴, 강한 팔을 가진 것이 상당히 중요시 되었다(Fuchs, 1912/1997). 복식은 이러한 육체 관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복식사가 Boehn and Losche (1996/2000)의 저서를 보면 퀴르트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는 퀴르트는 밀착되는 복식의 형태로 하체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고 고찰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 정신으로부터 영웅의 이상미를 신체적으로 구현하고 싶어하는 시대 정신의 과시적 욕구에 의한 결과로 분석하였다.

즉, 총재정부 시기 퀴르트를 착용한 상류층 남성 그룹은 강한 인간의 역할을 외관으로 표현하고자 하던 혁명 주도 세력 중 일부였으며, 패션을 통해 그들이 대중들과는 차별되는 계층임을 굳건히 하고자 하였음을 고찰할 수 있다.

3. 앵크루아야블 복식의 낭만주의 특성

3.1. 앵크루아야블 개념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1932)에 의하면 앵크루아야블을 총재정부시대 남성 젊은이들을 지칭한 명사로 너무나도 지나치게 멋을 부려 눈에 띄며 언어가 몹시 집짓 꾸민 것과 같은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Contini(1965)는 앵크루아야블을 문란한 풍속을 향유한 집단으로 서술하며, 그들의 이름은 언론 매체에서의 그들에 대한 신랄한 비평에서 비롯된 “incredible”의 형용사적 의미로부터 유래한다고 하였다. Lehmann(2002)과 Wilson(2003)은 앵크루아야블을 특정 복식 행위를 가지고 있는 영국 댄디(Dandy)의 프랑스 형(型)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Ziesenis and Bourhis(1989)의 연구에서는 앵크루아야블을 언어적 코드와 복식의 코드(Code)를 변형하는 매우 독창적인 삶의 방식을 개발한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언어학자 Lodge(2004)는 다른 그룹들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한 집단이 1790년대에 이르러 상류사회에서 나타났다고 보며 그 중 대표적 사례인 앵크루아야블을 당시의 트렌디한 젊은이라고 하였다. Mackrell(2005) 또한 앵크루아야블을 정확하게 묘사한 캐리커처 판화 시리즈를 분석하면서 이들은 사회의 최고층이었다고 언급한다.

프랑스 혁명 역사학자 Soboul(1962/2018)은 총재정부 말기 정부의 부패와 각종 투기의 성행으로 탄생한 벼락부자들은 문란한 풍속을 향유했다고 하면서, 이는 혁명력 2년의 공화국이 보인 스파르타적인 해와 대조를 이루었기에 보는 이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Fig. 3와 같이 카페에 모여 사교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부유하고 할 일 없는 일부 소수에만 국한되어 나타났고 절제되지 않은 쾌락 추구를 규범으로 삼은 이들을 통칭 ‘총재정부의 사교계’(Soboul, 1962/2018)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고찰하고 있다. 즉, 앵크루아야블은 총재정부시기 가장 패셔너블한(Fashionable) 그



Fig. 3. Incroyables in the cafe.
<http://arts-graphiques.louvre.fr/>



Fig. 4. Jeunesse dorée in tripot.
<https://gallica.bnf.fr/>



Fig. 5. Incroyables.
<https://gallica.bnf.fr/>



Fig. 6. Merveilleuse and Incroyables.
<https://gallica.bnf.fr/>

롭군으로 상류사회의 사교계에서 주목 받는 젊은이로 구성된 그룹이었던 것이다.

Becker(2010)는 앙크루아야블을 영국의 보 브러멜(Beau Brummell)의 변별된 옷차림과 태도를 모방한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황금청춘(Jeunesse dorée)(Fig. 4)으로 지칭하는데, 그들은 당시 혁명을 지지하던 상퀼로트 노동자들과 다른 가치를 지향했으며 그 저변에 귀족주의가 가진 특권의식을 보인다 고 하였다.

위와 같은 문헌들에서 지칭하고 있는 앙크루아야블의 차림에 대한 기록은 당시 화가들의 벼락부자들에 관한 소묘에 나타난 것과 일치 하고 있다. 또한 당시 유명한 삽화가인 오라스 베르네(Horace Vernet)의 소묘에는 하단에 텍스트로 지나치게 유행에 탐닉한 벼락부자들과 투기꾼들의 자녀들인 앙크루아야블(Fig. 5)과 파트너 메르베이외즈(Merveilleuse)(Fig. 6)를 지칭하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Boehn & Loschek, 1996/2000).

이러한 선행 연구의 타당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앙크루아야블을 프랑스 총재정부 시대 금융 엘리트 그룹의 2세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의복을 통해 기이한 형태와 사치의 남용을 표현 했던 무리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했다.

3.2. 앙크루아야블 복식의 특징

앙크루아야블 복식은 우아한 복장, 화려한 장식품, 고급스럽게 장식된 디테일, 독특한 태도를 보이며 총재정부 시기에만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었으며 당시 오만과 자기도취의 걸치레로 표출되었다.

앙크루아야블은 특별한 언어 행위와 멋부림으로 표현되는 옷차림 그리고 사교술에 확신에 차 있는 것으로 비취졌으며(Van Hende, 1874), Fig. 7과 같이 당시의 삽화에서 앙시앵 레짐 시기의 귀족들과 비교하여 나타난 새로운 사치스러운 패셔너블한 그룹으로써 비교되기도 하였다. 혁명으로 인해 새로 부상한 독특한 취향의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제의 폐단으로 여겨진 사치를 남용함으로써 폐단으로 여겨진 구귀족들과 비교 선상에 놓이면서 풍자적 대상이 된 것이다. 그들은 천박한 부르주아로 사회적 경멸의 시선을 받았지만 소비사회의 주류였다(Cho, 2015).

따라서 앙크루아야블 복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Fig. 7. Luxurious people of different ages are surprised to see each other. <https://gallica.bnf.fr/>

구귀족 복식의 모방이다. 젊은 부르주아들로 구성된 앙크루아야블은 혁명 이전의 귀족들에 대한 화려함을 질투하였으며(Perrot, 1981/2007), 과거의 귀족 양식을 모방하며 귀족처럼 생활하기를 원했다(Lodge, 2004). 혁명 이후 상류층 남성복에서 궁정사회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나, 총재정부 시기 남성의 신체를 장식하려는 욕구가 부활하였으며 이 귀족적 요소를 본받으려는 욕망을 Craik(1993)는 소집단에 한정된 단순한 애착이라고 분석한다. 금융업을 중심으로 새로 부상한 부르주아 계급이었던 앙크루아야블은 상퀼로트들이 추구했던 표준화된 의복으로 향하는 일반 시민들의 트렌드와 다르게 앙시앵 레짐 시절의 장식적인 남성복을 찬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앙크루아야블은 의상의 기본형으로 당시 상류층 계급에 보편적이었던 영국 전원풍 복장을 착장하였지만 긴 뒷자락, 특이한 형태의 부츠, 머리 뒤로 높게 올라간 칼라, 풍성한 크라바트, 가발의 미작용, 지팡이 등 디테일의 색, 재단 모양, 장신구가 달랐으며(Fig. 8), 이것들은 앙시앵 레짐 시기의 귀족 복식에 비해 여성해보이고 걸모습에 개이치 않아 보이는 방향으로 극도의 고의성을 가지며(Ashelford, 2009) 사치스러운 형태로 나타나 풍자 화가들의 표현 대상이 되었다(Fig. 9).

둘째, 사치의 남용으로 인한 과장된 표현이다. 혁명 이후로 사치는 구체제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였으며(Jeong & Jang, 2011), 혁명의 시작부터 공포정치 시기까지



Fig. 8. Incroyables and counterpart Merveilleuse. commons.wikimedia.org.



Fig. 9. Incroyables and Merveilleuses. https://gallica.bnf.fr.

는 패셔너블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도덕적 부패로 간주되었다. 사치는 개인적으로는 부정확한 축재의 결과이고 공동체로서는 잘못된 정책 결정의 결과이므로 공중과 조국을 배반하는 비애국적인 행위로 여겨진 것이다(Jeong & Jang, 2019). 하지만 총재정부 시기에 옷차림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이 완화됨으로써 복식은 다시 사치의 남용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으며, 특히 총재정부 시기 파렴치하게 부자가 된 소수의 사치는 그 어느때보다 민중의 비참함을 모욕하면서 부각되었다(Soboul, 1962/2018). 앵크루아아블은 극단적 과장을 띤 사치스러운 복식을 착장하였다.

앵크루아아블 복식의 경우 당시 잔존해 있던 있던 구귀족 복식과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각 부분별로 크기나 색상에 있어 과장의 형태를 띠었다. 상의의 경우 상류층 복식에서 보여지던 턴다운 칼라(Turndown collar)가 과장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과장된 형태의 넓고 커다란 라펠(Lapel)을 특징으로 한다. 목둘레로 매우 높은 크라바트(Cravat)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턱을 덮고 머리를 받치는 받침대(Contini, 1965)와 같을 정

Table 1. Features of Incroyables

Division	Characteristic
Shape	By wearing Culotte and Stocking to express masculine thighs exaggerated representation of curved formative beauty
	Single color like green
Color	Color contrast between turndown collar and lapel
	Combination of colorful colors such as white with colored stripes
Pattern and material	Heavy material without pattern
	Expensive and colorful materials such as cotton lace
Detail	Turndown collar
	Lapel
	Cravat
Hair style	Loop
	Dog's ears hair
	Cane
Accessories	Lorgnettes
	Cameo earrings, gold earrings
	Hat

도였다. 무릎 길이의 퀴로트 끝 부분을 밝고 색 있는 리본으로 고정하였으며(Contini, 1965; Zieseniss & Le Bourhis, 1989) 이것은 보통 코트와 대조되는 색깔의 줄무늬가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다(Contini, 1965). 스타킹의 경우 다리 둘레에 커다란 색깔의 링(Rings)을 만들기 위해 가로지르는 줄무늬가 있어 매우 우스꽝스러운 스타킹을 착용하였다(Waugh, 1964).

상류층 남성 복식과 앵크루아아블 복식의 조형적 차이점과 과장된 디테일의 경우 하의의 차이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상의 부분에서 턴 다운 칼라, 라펠, 크라바트의 사이즈(Size) 과장이 있음을 분석 결과 인식할 수 있었다.

앵크루아아블은 또한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추구했으며, 특정한 장신구를 가지고 다녔다. 앵크루아아블의 헤어스타일은 들쭉날쭉하게 잘라 옆에 그대로 둔 도그즈 이어 헤어(Dog's ears hair) 형태를 띠었는데, 이는 깔끔하게 멋을 낸 귀족의 머리 형태와 반대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Payne, 1988). 장신구의 경우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보통 사람의 얼굴을 양각한 장신구인 카메오 귀걸이(Waugh, 1964), 금귀걸이(Contini, 1965)를 착용했다. 또 커다란 손잡이가 달린 구식 안경(Lorgnettes)을 들고 다녔으며, 지팡이(Zieseniss & Le Bourhis, 1989)를 가지고 다녔다. Table 1은 앵크루아아블의 복식의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3.3. 앵크루아아블 복식의 낭만주의 특성

총재정부 시기의 사회적 배경과 예술양식 중 낭만주의를 분석한 결과 초기 낭만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과거 봉건제에 대한 향수, 개인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주관적 감정 표

현을 통해 쾌락적·유미적 예술 및 환상 추구의 특징으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앙크루아야블 복식을 고찰한 결과로서 복식에서 나타난 낭만주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3.3.1. 절대주의 시절에 대한 감정적 욕구 표출

절대주의 시절에 대한 감정적 욕구 표출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과거 봉건제에 대한 향수로 나타났다. 앙크루아야블 복식은 총재정부 시기 남성의 신체를 장식하려는 귀족적 요소를 분반하려는 집단의 것이며 쾌락(Pleasure)적이며 호화로운 디테일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혁명 시기에 혁명 전의 귀족 복식은 도덕적 부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Amann, 2015), 공포정치 시기에 구귀족 사회를 암시하는 복식은 생명에 위협이 되었다. 이후 총재정부 시기에는 이에 대한 억압적 분위기에 대한 반동으로 사람들은 쾌락과(Hausser, 1983/2016) 호화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였다.

이는 낭만적(Romantic)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낭만적인 감정은 감정, 주관성, 독창성 등 감성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향하며 환상적인 이상 속에서 발현되었다. 즉, 앙크루아야블의 복식은 부르주아의 절대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개인의 사고를 중요시 한 결과이다.

Fig. 8은 사치스러운 복식을 착장한 사람들을 대조한 그림으로 서로가 서로의 사치스러운 복식 형태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왼쪽 남성 앙크루아야블은 신흥 벼락부자들로서 오른쪽의 구귀족과 같은 사교적 위치를 확보하기를 강력히 열망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혁명 후 복식에 대한 신분적 제제가 사라진 이후 절대주의 시절에는 착장하지 못할 복식을 착장함으로써 사교계의 구성원으로 주목받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앙시앵 레짐 시기의 복식을 차용하였는데, 그대로 모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목받고 싶은 본인들의 열망을 복식에 표현하였다. Fig. 10, Fig. 11과 같이 팔부분까지 닿는 넓은 폭의 턴다운 칼라(Turndown collar), 높게 목을 감싸는 크라바트(Fig.

12) 그리고 무릎 부분의 루프를 통해 귀족적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앙크루아야블은 실제로 절대주의 시절 직접적으로 그 문화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파생된 열등적 감정을 의복을 통해 표출했는데 이는 영성환 흥내와 더불어 사치스러운 과장 또는 강조로 나타났다. 즉 앙크루아야블은 전통적으로 수용되어져 온 규칙의 습득자가 아닌 변형자로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앙크루아야블의 복식의 변형은 허영에 대한 과시를 부각시키기 위해 복식의 디테일을 과장 및 강조하는 것이었다.

3.3.2. 로맨틱 클래식시즘(Romantic classicism)의 혼성(hybrid)

로맨틱 클래식시즘의 혼성은 개인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주관적 감정 표현을 통해 쾌락적·유미적 예술 및 환상을 추구하였다. 낭만주의는 엄격한 고전미에서 탈피해 과장이나 왜곡, 불분명한 묘사 등을 여과없이 표현함에 있다. 비레나 균형 같은 사물의 객관적 속성에 따른 고전미와 대조적으로 낭만적인 미는 인식 주체의 주관적 감성의 표현이었다(Roh, 2010). 젊은 남성 중심인 앙크루아야블은 새로운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 그들만의 패션을 창조하여 특수한 성적 특징을 부각시켰다. 성적 특징의 부각은 하의에서 나타난다. 앙크루아야블 복식의 하의는 인식 주체의 주관적 감성의 표현으로써 건강하고 혁명적인 남성의 두터운 하체를 표현하기 위한 퀴로트와 스타킹(Stocking) 착용으로 극선적 신체미를 과장스럽게 표현한 형태이다(Fig. 13, 14).

즉, 앙크루아야블 복식은 성적 체형을 강조하는 의상이며 이는 로맨틱 클래식시즘의 혼성 형태이다(Mackrell, 2005). 비자연으로 여겨지던 앙시앵 레짐으로부터 진정한 자연인 혁명 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신고전주의의 의식은 그리스식 복장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신체의 건강함을 표현하기 위해 나체 즉, 신체 근육질의 실루엣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Fuchs, 1912/1997). 신체에 밀착되는 형태로 나타난 앙크루아야블의 퀴로트와 스타킹 착용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의



Fig. 10. A revolutionary Tyranny crushed by the friends of the constitution of year III. <https://gallica.bnf.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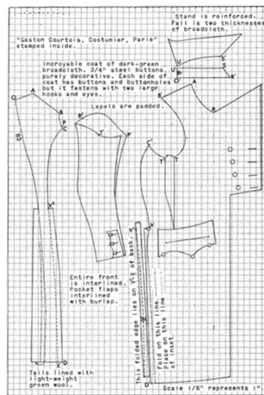


Fig. 11. Incroyables's coat pattern. History of costume (1965/1988), p.644.



Fig. 12. Coat of Incroyables. Extreme beauty (2004), p.22.



Fig. 13. Incroyables's culottes and stocking.
<https://gallica.bnf.fr>



Fig. 14. Jeunesse dorée.
<https://gallica.bnf.fr>



Fig. 15. A lady and gallant(1795).
 Select historical costumes(1867), p. 98.

Table. 2. Romanticism characteristic of incroyables

		Contents	Reflection element	Clothes division	Feature	Characteristic
Expressing emotional needs of ancien-régime	Romantic	Free expression of emotion	Imitation Luxury	Culotte	Loop	Exaggeration
		Luxury detail reflection		Stocking	Color and textile	Emphasis
	Nostalgia	Pursuit of aristocratic elements to decorate the body		Collar	shape	Exaggeration
		Fantastic ideal world		Cravat	shape	Exaggeration
			Accessory	Cane lorgnettes earrings hat	Exaggeration	
Hybrid of romantic classicism	Romantic	Subjective emotional expression	Pleasure Classic	Culotte	Shape	Emphasis
		Pleasant expression of libido				
	Classicism	Muscular Representation of the body		Stocking	Shape	Emphasis
		Return to true nature				

양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남성들은 고전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몸의 형태를 강조하면서 옷이 몸에 꼭 맞는(Figure hugging) 방식으로 재단 또는 테일러드(Tailored) 하였는데(Mackrell, 2005), Fig. 15의 전체적인 의복 형태와 같이 체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형태의 코트와 퀴로트, 스타킹 착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혁명 이후 상류층 복식의 퀴로트를 포함한 성장 차림은 구체제 시절의 정해진 조건, 자질, 계급, 신분 등을 표현하는 복장으로서 계급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외형적인 장엄한 이미지라면, 신부르주아 계급의 퀴로트를 포함한 형태의 앙크루아야블 복식은 선천적 계급에 따른 복장이 아닌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연의 미덕과 느낌에 대한 표현인 것으로 내적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인지할 수 있다. 앙크루아야블 복식을 고찰한 결과 복식에서 나타난 낭만주의 특성 분석결과와 Table 2와 같다.

4. 결 론

18세기 말은 낭만주의가 시작된 시기로 이 시기에 나타났던 독특한 그룹인 앙크루아야블을 고찰해 보면 사회적 및 예술적 정서 변화에 따른 복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프랑스 혁명 이

후 상류층 남성은 새롭게 형성된 신혼 부르주아를 주축으로 문화의 중심점이 변화하였으며 신혼 부르주아 남성 복식의 경우 크게 앙시앵 레짐 시기 복식 코드를 계승하는 집단과 배척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앙크루아야블의 복식은 퀴로트 복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것은 자유, 평등, 형제애를 강조한 프랑스 혁명 이후 신분적 계급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앙시앵 레짐 시기 의상에 대한 특권의식이 새롭게 부상한 부르주아 계급에게 전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앙크루아야블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개인의 내면 표현을 복식을 통해 표출하였다. 이에 연구 목적으로 앙크루아야블 복식에 표현된 낭만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절대주의 시절에 대한 감정적 욕구 표출이다. 앙크루아야블 복식은 부르주아의 절대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인간관을 강조한 결과이다. 앙크루아야블은 절대주의 시절 신분적 차이로 인하여 경험하지 못했던 복식 문화에 대한 열등적 감정을 과장 및 강조된 형태의 복식을 통해 표출했으며 이는 앙시앵 레짐 시기와 비교하여 영성한 형태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들은 규칙의 변화자였으며 이는 낭만주의의 영향이었다.

둘째, 로맨틱 클래식주의의 혼성이다. 이는 자연으로 회귀하

고자 하는 신고전주의의 영향으로 고전적인 형태를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함에 있어서 신체 형태 즉 신체미를 강조해서 나타나는 형식으로써 퀴로트, 스타킹 차림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급의 우월성을 나타내던 앙시앵 레짐 시기의 외형적 장엄함과는 다른 양상으로 앙크루아야블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연의 미덕과 느낌을 고전주의 정서와 혼성시키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반영된 신체미를 강조하는 형태의 복식은 성욕의 쾌락적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앙크루아야블 복식의 변화 요인들을 분석하고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예술양식이 복식에 반영된 양상을 설명함으로써, 기존 앙크루아야블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우스꽝스럽거나 기괴한 형태로 단순히 정치적 의미를 지닌 안티패션으로 여겨지던 관점에 깊이 있는 복식사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앙크루아야블과 같이 이전 시대 지배계층의 복식을 과장하여 모방하는 젊은 세대의 복식 유행은 후에 20세기 테디 보이와 같은 하위문화로 나타났다. 즉, 한 세기 전 앙시앵 레짐 시기에서 모던 시대로 변화하는 과도기에서도 앙크루아야블이라는 젊은 집단을 통해 시대 예술 정신의 표출에 있어 복식을 중심으로 특이한 문화를 보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앙크루아야블이 활동한 당시의 사회문화 전반을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예술사조 및 인문학적 영향을 받아 복식에 나타난 점을 토대로 프랑스 덴디의 원류를 분석함으로써 서양 복식사 연구 발전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

References

- Académie française. (1932).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8 ed.). Paris: Librairie Hachette.
- 'A revolutionary Tyranny crushed by the friends of the constitution of year III'. (1795-6). *Gallica*. Retrieved August 13, 2019,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412643s/fl.item.r=estampe%20d'A>
- Amann, E. (2015). *Dandyism in the age of revolution: The art of the cut*. US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shelford, J. (2009). *The art of dress: Clothes and society 1500-1914*. UK: Nationaltrust.
- Becker, K. (2010). *Le dandysme littéraire en France au xixe siècle* [The literary dandysme in 19th century France]. Orléans: Paradigme.
- Blancpain, M., & Couchoud, J. P. (2010). *La civilisation française* [French civilization] (J. Y. Song, Trans.). Seoul: Joongwon Munhwa. (Original work published 1920)
- Boehn, M., & Loschek, I. (2000). *Die mode [a trendsetter]* (M. S. Cheon, Trans.). Seoul: Hangilart.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Cho, E. R. (2015). Approche philosophique du dandysme : Métaphysique de l'apparence [Philosophical approach to dandysm : Appearance metaphysics]. *Revue d'études Françaises*, 90, 321-341.
- Cho, K. S. (2016). What makes France a fashion power: A socio-historical approa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2), 32-44. doi:10.7233/jksc.2016.66.2.032
- Contini, M. (1965). *Fashion, from ancient egypt to the present day*. New York: The Odyssey Press.
- Craik, J. (1993). *The face of fashion-cultural studies in fashion*. London: Routledge.
- Dawson, C. (2015). *The gods of revolution*.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 Fuchs, E. (1997). *Illustrierte Sittengeschichte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das bürgerliche zeitalter* (G. U. Lee & J. M. Park, Trans.). Seoul: Kachi. (Original work published 1912)
- Hauser, A. (2016).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e* [Social history of art and literature] (N. C. Baek & M. U. Yum, Trans.). Seoul: Changbi.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Heath, D., & Boreham, J. (2002). *Romanticism*(S. M. Lee, Trans.). Seoul: Kimyou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Hinton, H. L. (1867). *Select historical costumes: Compiled from the most reliable sources*. New York : Wynkoop & Sherwood.
- 'Incroyables'. (1796). *Gallica*. Retrieved August 13, 2019, from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412776h/fl.item>
- 'Incroyables and counterpart Merveilleuse'. (1801). *Wikimedia Commons*. Retrieved January 27, 2020. from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a_Walse.jpg
- 'Incroyables and Merveilleuses'. (1797). *Gallica*. Retrieved March 3, 2019. from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412783n/fl.item.r=incroyable>
- 'Incroyables's culottes and stocking'. (1797). *Gallica*. Retrieved August 13, 2019. form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412724s/fl.item.r=jeunesse%20dor%C3%A9e>
- 'Incroyables in the café'. (1797). *Musée du Louvre, Département des Arts graphiques*. Retrieved January 27, 2020. from <http://arts-graphiques.louvre.fr/detail/oeuvres/0/520922-Cafe-des-incroyables>
- Jeong, H. S., & Jang, Y. Y. (2019). Educational reality and emotional education of the 1780s in the Tableau de Paris. *Cross-Cultural Studies*, 54, 57-87.
- Jeong, H. S., & Jang, Y. Y. (2011). Femmes et Révolution dans le Tableau de Paris et l'an deux mille quatre cent quarante de louis Sébastien Mercier [Women and the revolution in the Tableau de Paris and the year two thousand four hundred and forty Sebastian Mercier praise]. *Revue des Etudes Françaises*, 58, 373-396.
- 'Jeunesse dorée'. (1797-1815). *Gallica*. Retrieved August 13, 2019, from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4127041/fl.item.r=jeunesse%20dor%C3%A9e>
- 'Jeuness dorée in tripot' (1797). *Gallica*. Retrieved August 13, 2019. From.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412777x/fl.item.r=jeunesse%20dor%C3%A9e>
- Kim, M. C. (2015). Featured articles: French revolution and politics: Antonelle et sa theorie de la «democratie representative» sous le Directoire [Featured articles: French revolution and politics: Antonelle and his the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under Directoire]. *The Journal of Western History*, 53, 53-103.
- Koda, H. (2004).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 Korean Dictionary Research Editor. (1998). *Art unabridged dictionary*. Seoul: Author.
- Laver, J., De La Haye, A., & Tucker, A. (2002). *Costume & fashion a concise history* (I. H. Jeong, Trans.). Seoul: Sigongart.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Lehmann, U. (2002). *Tigersprung: fashion in modernity*. Cambridge, Mass: MIT Press.
- Lee, G. A., & Jeon, H. J. (2004). The style of romanticism on fashion (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1), 141-157.
- Lee, J. K. (2011). La formation des forces politiques et l'évolution du système politique en France [The formation of political forces and the evolu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n France]. *Revue d'études Françaises*, 74, 323-344.
- Lim, S. J., Yeo, H. G., Han, D. S., Kang, D. S., Kang, Y. G., Kim, Y. T., & Kim, Y. J. (2012). *Dictionary of philosophy*. Seoul: Joongwon Munhwa.
- Lodge, R. A. (2004). *A sociolinguistic history of parisian Fren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xurious people of different ages are surprised to see each other'. (1797). *Gallica*. Retrieved March 3, 2019, from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4127842/fl.item>
- Mackrell, A. (2005). *Art and fashion: the impact of art on fashion and fashion on art*. London: Barsford.
- 'Merveilleuse and Incroyables'. (1797). *Gallica*. Retrieved August 13, 2019, from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52502466q/fl.item>
- Payne, B. (1988). *History of costume: From the ancient egyptians to the twentieth century* (J. N. Lee, Trans.). Seoul: Kkachi. (Original work published 1965)
- Perrot, P. (2007). *(Les) Dessus et les dessous de la bourgeoisie* (J. H. Lee, Trans.). Seoul: Hyunsilbook.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Roh, Y. D. (2010). The study on the aesthetic of romanticism: Concerning the background of its thought and the aesthetic property.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1(6), 195-206.
- Soboul. (2018). La révolution française (K. S. Choi, Trans.). Seoul: gooyangin. (Original work published 1962)
- Song, K. H. (2012). Une étude sur la relation entre l'évolution de la société de la bourgeoisie et le changement de mouvement littéraire dans la France du 19e siècle (I)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olution of the bourgeoisie society and the change of literary movement in 19th-century France]. *Revue d'études Françaises*, 77, 209-239.
- 'The public promenade'. (1792). *Google art & culture*. Retrieved August 13, 2019, from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public-promenade-la-promenade-publique-philibert-louis-debucourt/jwF3blcz5TJ3JQ>
- Time life books. (2005). *What life was like in europe's romantic era: Europe, 1789-1848* (H. S. Shin, Trans.). Seoul: Galamgihoeg.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Van Hende, E. (1874). *Histoire de Lille de 620 à 1804*. Lille: L. Danel.
- Wallace, C. (1986). *Dance: A very social history*.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 Waugh, N. (1964).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New York : Routledge.
- Wilson, E. (2003).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 Yang, Y. S. (2015). Featured articles: French revolution and politics : antislavery discourse under the directory, 1795-1799: A study on "la societe des amis des noirs et des colonies". *The Journal of Western History*, 53, 139-167.
- Zieseniss, C. O., & Le Bourhis, K. (1989). *The age of napoleon: Costume from revolution to empire, 1789-1815*.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Received 30 September, 2019; 1st Revised 24 October, 2019; 2nd Revised 7 November, 2019, Accepted 15 November, 2019)